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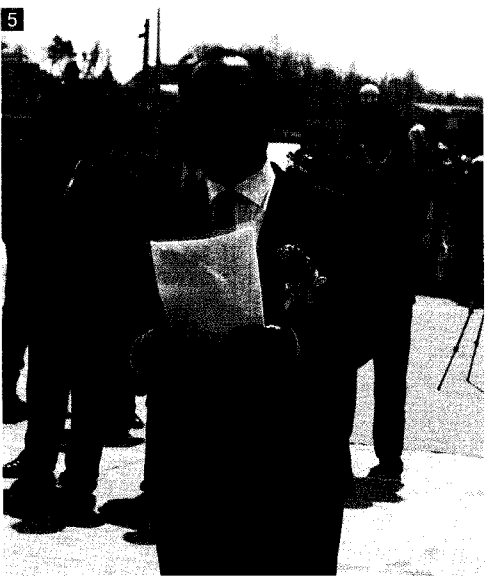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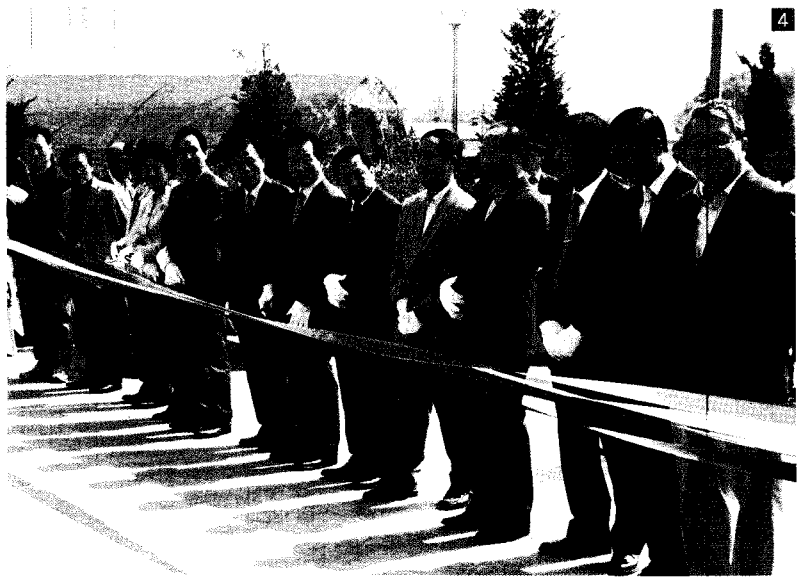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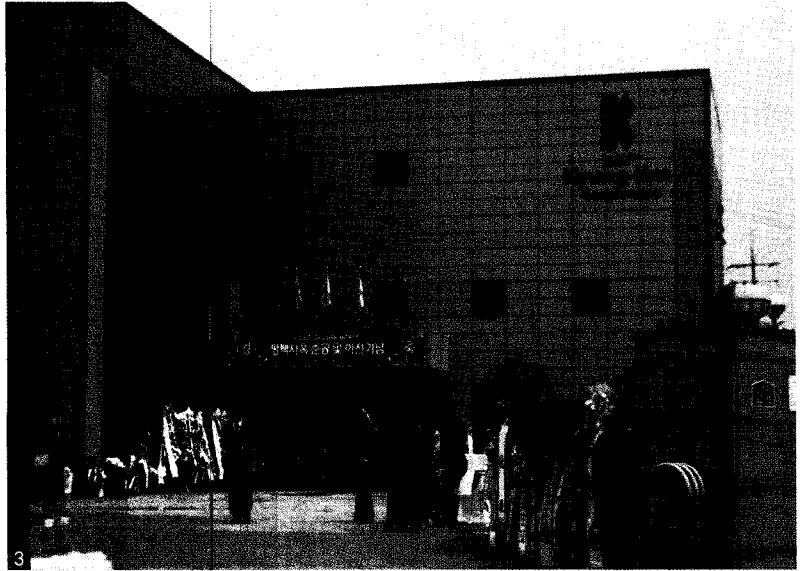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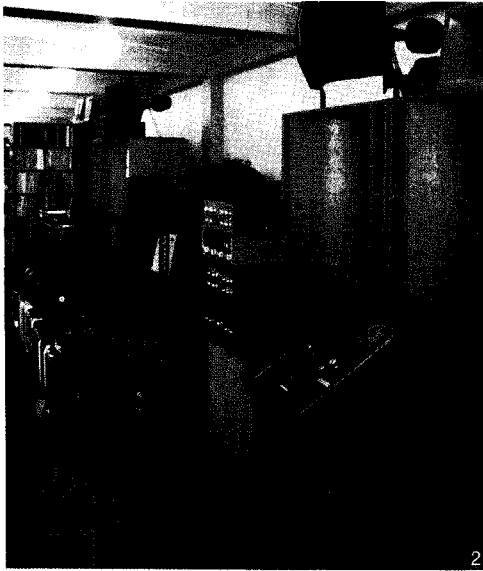
경림코퍼레이션 평택 사옥 오픈식

현대식 3층 사옥, 인쇄 및 후가공 라인 갖춰



(주)경림코퍼레이션(대표이사 리우식)은 지난 5월 7일 오후1시에 새롭게 마련한 평택 본사와 공장의 오픈식을 가졌다. 이날 오픈식은 대한인쇄문화협회 김남수 회장, 이순석 부회장, 인쇄문화경영자동우회 박제덕 상임회장을 비롯한 인쇄업계 관계자 및 지인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을 갖고 이어 1, 2층 생산시설과 1단계로 조성된 3층 박물관을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리우식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업다변화와 규모의 확장에 따라 서울 연희동 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시에 새로운 사옥과 공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올해 초부터 이전해 정상업무를 하고 있으며 인쇄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 결심한 대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노력해 왔다”며 “이처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경림코퍼레이션과 자신을 아끼고 격려해 준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1. 경림코퍼레이션 평택 사옥 오픈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2~3. 경림코퍼레이션 평택 사옥 내·외부 전경과 음향박물관에 소장한 오디오기기들
4. 오픈식에 참여한 내빈들이 테이프 커팅에 참여하고있다. 5. 경림코퍼레이션 리우식 대표이사

확장 이전으로 새로운 발전 시대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567-1번지로 이전한 경림코퍼레이션은 연희동 시절에 비해 크게 넓어진 약 2000여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지에 3층 사옥을 마련했다. 1층에는 인쇄기와 후가공라인을 설치했으며 3층에는 주방과 목욕탕 등이 완비된 직원 숙소를 마련해 직원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3층의 일부에 30여년간 수집, 소장해온 다양한 음반과 오디오시스템을 선보이는 음악박물관을 꾸며 놓았다. 리 사장은 오랜 시간과 적잖은 자금을 들여 힘들게 마련한 빈티지 오디오기기가 아직 최종적인 완성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지만 일차적인 조성을 마무리하게 되어 기

쁘며 앞으로 공간을 더 넓히고 소장 음반과 오디오 기기를 더욱 확대해 규모는 작지만 전문성 있는 오디오 기기와 음반들로 가득찬 전문 음악박물관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 테이프커팅 인원 기록하기도

한편, 징검다리 연휴의 영향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고 비교적 먼 거리에서 오픈식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을 훌쩍 넘는 축하객들이 방문했으며 다양한 친목모임에 속해 있는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인쇄업계 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리우식 사장의 왕성한 활동에 따른 것으로 이날 행사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초청, 식사를 함께 하며 테이프커팅식과 사옥 견학 행사를 진행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현재 리우식 사장은 대한인쇄문화협회 이사 및 인쇄문화협회 내에 설치된 미디어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인쇄업계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